ABARES 2015년 축산 전망*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양모)

송 우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쇠고기 전망

1.1. 단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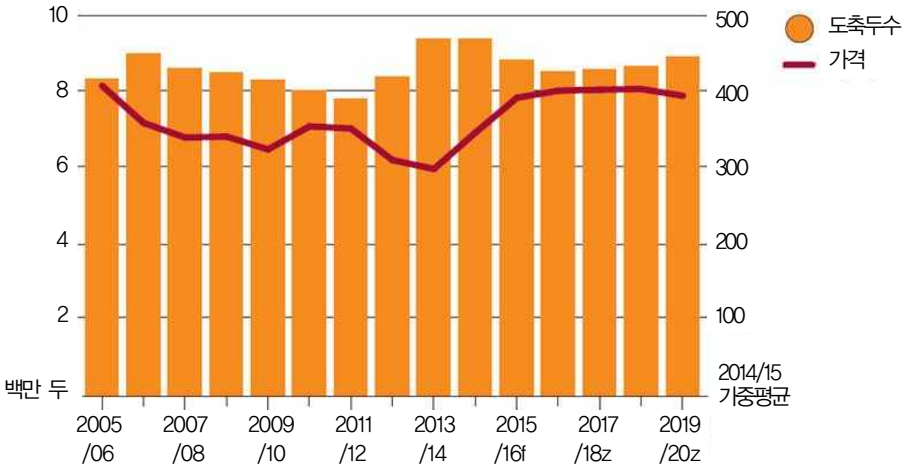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높아 2014/15년 호주 소 가격을 지지해왔다. 2015년 초반 사육규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 입식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소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16년 산지 경매가격[1] 가중평균은 16% 상승한 kg당(지육기준) 405센트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와 주요 수입국의 관세인하 효과로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우 수출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비육우의 산지 경매가격 가중평균은 19% 상승한 kg당 349센트로 전망된다.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상반기 중 소 도축두수가 증가하였으나 수출확대와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 효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4년 7월~11월 기간 동안 소 도축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9%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 가중평균은 9% 상승하였다. 소 가격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기간에 추가로 상승하였다. 이후 소 주산지에 다

* (gnos@krei.re.kr 02-3299-4328). 본고는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의 2015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 saleyard price: 지역별로 개설된 경매시장에서 생축이 거래되는 가격.

량의 강우가 발생하여 도축두수가 늘었고, 이후 사육규모를 회복하기 위한 송아지 위주의 입식 수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쇠고기 가격이 높아 2014/15년 잔여기간 동안에도 도축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소와 송아지 도축두수와 산지가격 가중평균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평년 수준의 기후조건을 가정하면, 2015/16년 비육우의 산지가격 가중평균은 16% 상승한 kg당 405센트로 예상된다. 기후조건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소 사육규모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농가는 사육규모 확대를 위하여 암소를 보유하고 입식용 소 구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 가격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와 주요국과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로 호주산 쇠고기 수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사육규모 확대와 이에 따른 소 도축두수 감소로 소 가격은 2016/17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에 대한 수출 증가로 2017/18년과 2018/19년에도 소 가격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2019/20년에는 소 사육규모가 확대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소 가격(실질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1.2. 도축과 생산

2014/15년 호주의 소 도축두수는 950만 마리로 예상된다. 2014/15년 상반기 동안 소 주산지의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히 호주 서부지역의 소 도축이 많았

다. 2014년 7월~12월 기간에 암소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9%, 수소 도축두수는 4% 증가하였다. 높은 소 가격이 농가의 출하를 독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4/15년 잔여기간 동안 소 도축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생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50만 톤으로 추정된다. 평균 도축중량은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암소 도축 비율이 상승한 점과 상반기 중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 사육농가의 입장에서는 적정 중량에 이르기 전에 소를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평년 수준의 기후조건을 가정하면 2015/16년 소 도축두수는 6% 감소한 890만 마리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사육농가의 수용능력이 향상되고, 사육규모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암소 도축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2년간 브랜딩 비율(분만율과 폐사율의 차이)이 평년에 비해 낮은 점도 2015/16년 도축 가능한 소의 공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 가격이 높으면 사육농가가 출하를 늘릴 유인이 증가하고, 기후 조건의 호전도 도축중량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소 출하두수의 감소가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5/16년 생산량은 평년대비 5% 감소한 24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6/17년 호주의 소 도축두수는 평년대비 3% 감소한 860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은 평년 수준의 기후조건하에서 사육규모 확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을 둔다. 이후 도축두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900만 마리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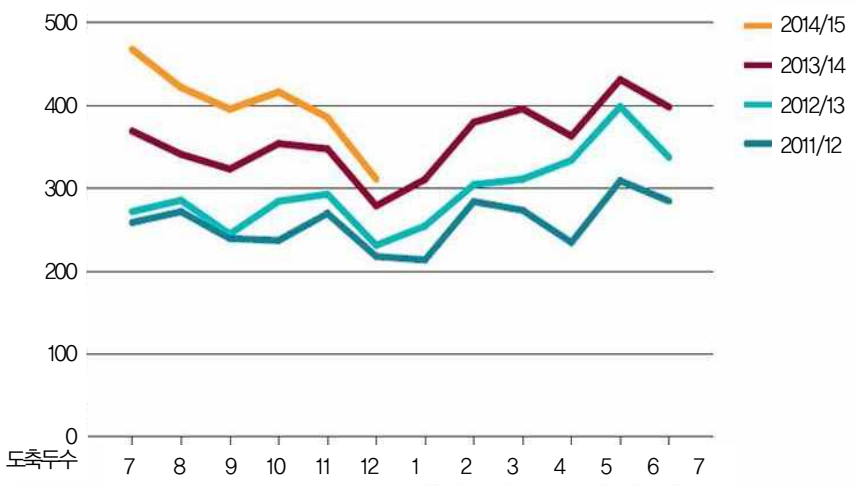
1.3. 소 사육두수 감소 후 증가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013년 6월 2,930만 마리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사육두수 감소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기후조건이 악화되면 분만 율이 낮아지고 폐사율이 증가한다. 그 결과, 도축이 증가하고 해외 수요에 기반을 둔 생축 수출도 증가한다.

2013/14년 도축되거나 생축으로 수출된 두수 비율은 36%로 2002/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4/15년에도 이 비율이 추가로 상승하여 37%로 예상된다. 사육두수 감소의 정도는 암소 도축두수에 반영되어 있다. 월간 암소 도축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월 소 사육두수는 2,700만 마리로 감소하였다.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015/16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분만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된 송아지 두수는 도축과 생축 수출두수에 의하여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호주의 암소 도축두수



자료: ABARES(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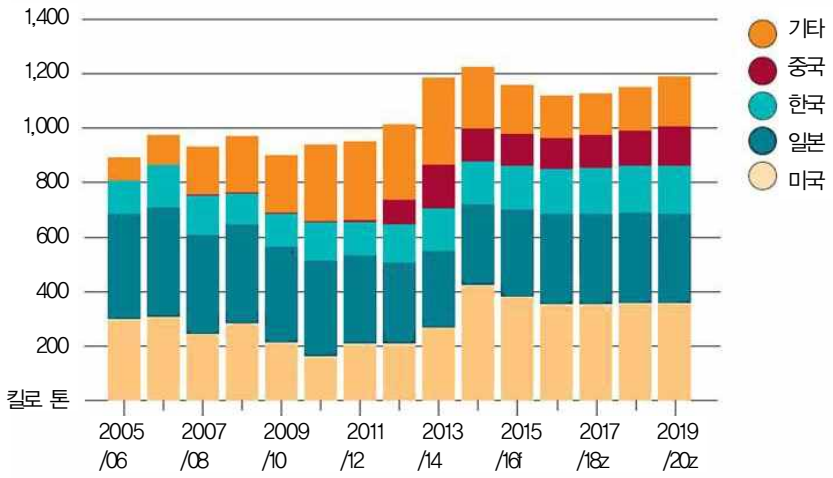
중기적으로 평년의 기후조건이 유지되면 2016/17년부터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사육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6월에는 2,720만 마리로 전망된다.

1.4. 호주산 쇠고기 수출 증가 전망

2014/15년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수출은 3% 증가한 12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와 한국, 일본의 관세 인하효과로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4/15년에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출의 34%를 차지하여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에는 22%를 차지했었다. 대일본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생산 감소를 반영하여 2015/16년 호주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출은 5% 감소한 120만 톤을 밑돌고, 2016/17년에도 3%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쇠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부터 2019/20년 기간에는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 호주산 쇠고기 수출은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등 주요 4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정도는 매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출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1.5. 수출

1.5.1. 일본

2014/15년 대일본 수출은 7% 증가한 30만 톤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 시장에 재진입한 2006년 이후 일본 쇠고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201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 연령제한이 완화되면서 일본에서 쇠고기 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연령제한 완화 전 미국산 쇠고기는 21개월령 이하만 일본 수출이 가능했었다. 결과적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2004/05년 90%에서 2013/14년에는 53%로 하락하였다. 2014/15년 호주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JAEPA(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인한 관세 인하와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인하다.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일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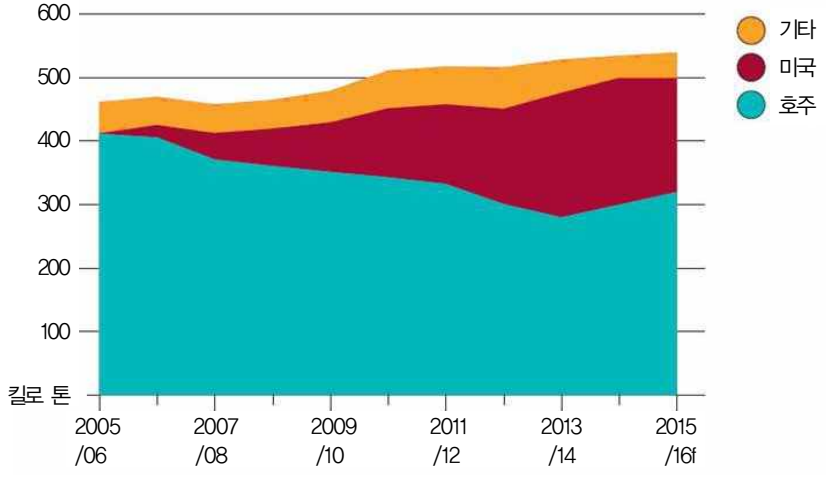
2015년 1월 15일 JAEPA가 발효되면서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 관세는 38.5%에서 냉동 쇠고기 30.5%, 냉장 쇠고기 32.5%로 인하되었다. 2015년 4월에는 냉동 쇠고기 2%, 냉장 쇠고기 1%의 추가 관세 인하가 2015년 4월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관세 인하 시점이 일본의 재정연도(4월~다음년도 3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주의 수출업자는 2015년 중반 이전에 큰 폭의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향후 15년 동안 관세

인하는 완만하게 진행되어 이행 기간 년도에는 냉동 쇠고기는 19.5%, 냉장 쇠고기는 23.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50%에 달하는 일본의 세이프가드 관세는 호주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수입이 폭증할 경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효되는 관세이다. 일본의 세이프가드(일명 비프 스냅백)는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7% 이상 증가할 경우 50%의 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호주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것과 다르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특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38.5%의 관세가 적용된다. 조약 이행 첫해의 상한선은 냉동 쇠고기 19만 5,000톤, 냉동쇠고기 13만 톤이다. 상한선은 이행 10년차까지 매년 증량되어 마지막 해의 상한선은 21만 톤(냉동), 14만 5,000톤(냉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일본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출은 2015/16년에 7% 증가한 32만 톤으로, 2016/17년에는 5% 증가한 33만 5,000톤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 요인은 주로 미국산 대비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이 사육규모 확대 국면에 접어든 점도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 증가 요인 중 하나이다.

2017/18년에서 2019/20년 기간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쇠고기 수입량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일본 쇠고기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 남아있을 것이고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은 JAEP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사육규모 확대 국면을 지나 쇠고기 생산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화되

그림 4 일본의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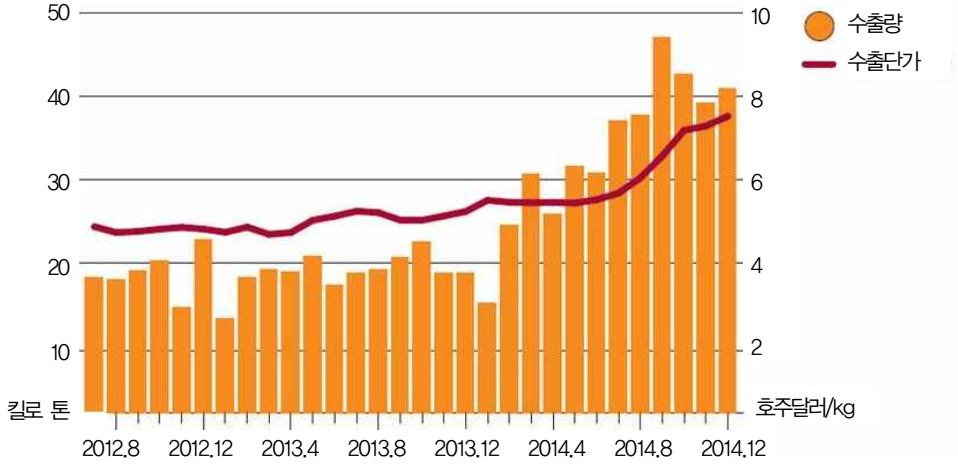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면서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이 감소하여 2019/20년에 33만 톤으로 전망된다. 특히 쇠고기 가운데 고가 부위의 수출 감소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1.5.2. 미국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미국 수출은 2014/15년 58% 증가한 42만 톤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7월에서 2015년 1월 기간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114%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쇠고기 특히 암소고기 생산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쇠고기 소비자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호주의 가공용 쇠고기 생산 증가가 미국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2014/15년 상반기 평균 미국 수출단가는 kg당 6.62달러로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일본 수출 단가는 kg당 6.08달러, 한국 수출 단가는 6.34달러였다. 2014년 12월 호주산 쇠고기의 미국 수출단가는 kg당 7.47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5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미국 수출



자료: ABARES(2015).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미국 수출은 2015/16년 10% 감소한 38만 톤으로 전망된다. 평년 기후조건을 가정하면 미국은 사육규모 회복이 진행되면서 암소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젖소 도축이 감소하고 호주산 가공용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호주의 가공용 쇠고기 생산이 많지 않아 쇠고기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따르면 2015년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2014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공

급량이 증가하여 이들 육류가 쇠고기 대체제로 선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쇠고기 생산이 위축되면서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미국 수출은 2016/17년에도 8%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잔여 전망기간 동안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미국 수출은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USDA에 따르면 미국의 쇠고기 생산이 이 기간 동안 증가하더라도 미국의 쇠고기 수출과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쇠고기 수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1.5.3. 한국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한국 수출은 2014/15년 큰 변동이 없는 15만 5,000톤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전반 7개월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8% 감소하였다. 2014/15년 하반기 호주의 쇠고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한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호주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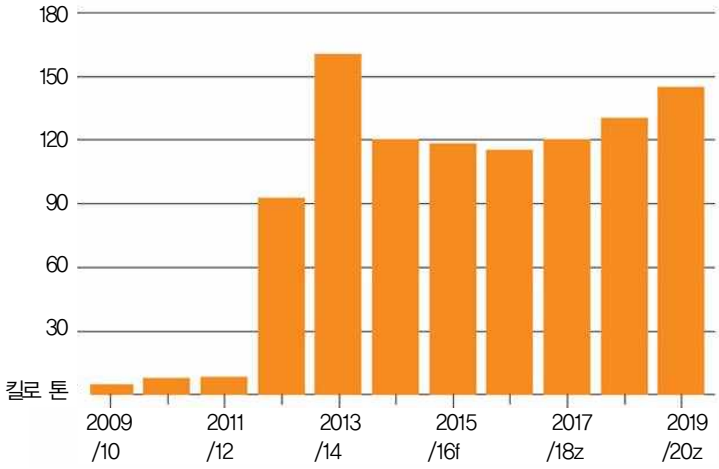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었다. FTA 관세 시간표에 따르면 발효 전 쇠고기 관세율 40%가 향후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2028년에는 무관세 무역이 실현된다. 호주의 가장 큰 경쟁국인 미국도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2년 발효되어 쇠고기 관세 40%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따라서 2028년까지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는다. 2015년 한국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은 35%, 미국산은 29%의 관세가 적용된다. 2015년에서 2026년 기간 동안 두 나라간 관세 격차는 2015년 5.3%의 격차가 최댓값이다. 2014년의 8% 격차에 비해 관세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2027년 관세 격차는 2.7%에서 2028년 두 나라 모두 무관세 적용을 받아 격차가 소멸한다.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한국 수출은 2015/16년 2% 증가한 15만 8,000톤으로 전망된다. 수익성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정부 보상에 의한 폐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의 쇠고기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구조 조정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산에 비해 높은 관세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에 비해 수입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입가격은 호주산 쇠고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호주 수출업자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왜냐하면 다른 수출 시장에 비해 판매액이 높기 때문이다. 2019/20년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한국 수출은 17만 5,000톤으로 전망된다.

1.5.4. 중국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중국 수출은 2014/15년 25% 감소한 12만 톤으로, 2015/16년 에는 2% 추가 하락한 11만 8,000톤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 상승과 남미 지역의 쇠고기와 경쟁이 심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4년 7월~11월에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41% 감소한 반면, 우루과이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은 28% 증가하였다. 2014년 11월 기준 중국의 쇠고기 수입단가는 호주산이 우루과이산에 비해 44% 높았다.

그림 6 호주산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중국 수출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중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쇠고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증가가 중국내 생산을 초과하면서 쇠고기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17년부터 중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호주는 중국 쇠고기 시장의 주요한 공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남미 국가와의 경쟁이 예상되고,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중국과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1월 중국은 칠레산 냉동 쇠고기와 양고기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을 발부하여 중국 쇠고기 시장은 칠레에 개방되었다. 한편, 중국-호주 FTA가 비준되면 중국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쇠고기 수입에 있어 최혜국 관세는 냉동지육 25%, 냉장지육 20%, 부분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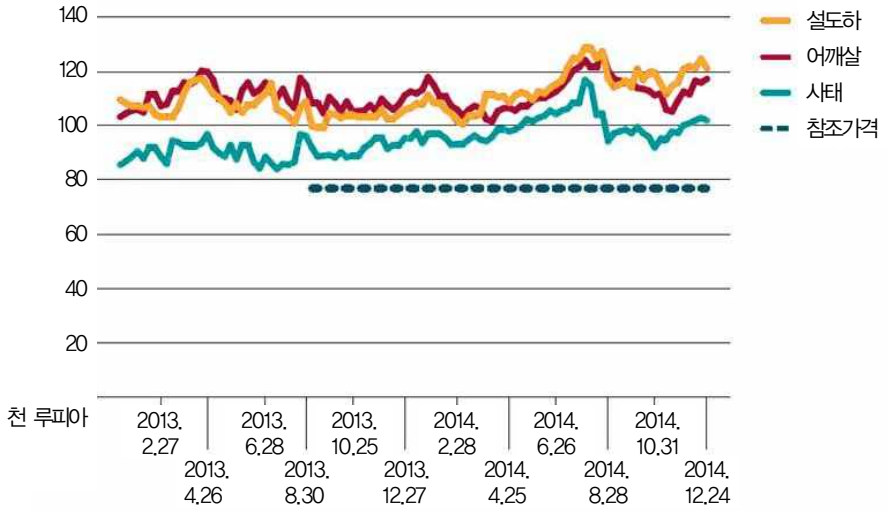
12%이다. 중국-호주 FTA하에서 이 관세가 9년 내에 철폐될 예정이다. 2013/14년 중국이 수입하는 호주산 쇠고기 중 지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호주 FTA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호주산 쇠고기가 일정량 이상 수입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고 호주산 쇠고기에 최혜국 관세가 적용된다. 기준량은 첫해 17만 톤으로 2013/14년 수출량보다 6% 많은 양이다. 기준선은 향후 10년간 매년 증량된다.

1.6. 생우 수출 강세 전망

호주산 비육용 소와 도축용 소의 수출은 2014/15년 10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4년 7월~12월 기간 호주산 생우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8% 증가하였고, 베트남 수출은 95% 증가하였다.

2013년 9월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우 수입에 관한 참조가격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쇠고기 가격이 참조가격을 상회하면 정부는 생우 수입허가량을 증량하고, 참조가격을 밑돌면 허가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참조가격을 7만 6,000루피아에서 8만 5,000루피아로 상향하였다. 가격은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참조가격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14/15년 전반 6개월간 평균가격은 참조가격에 비해 50%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참조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쇠고기 부분육 평균가격(Kebayoran Lama wet market,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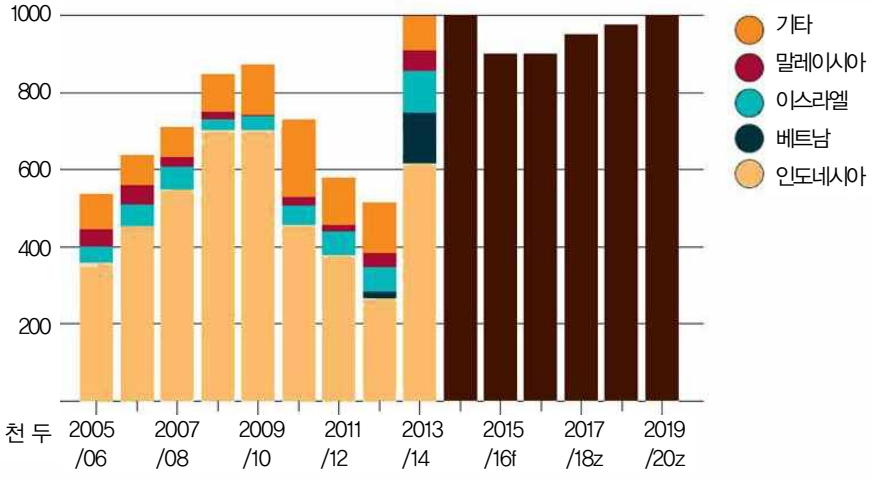
자료: ABARES(2015).

2015년 1월에 인도네시아는 2015년 3월 분기 수입허가를 발표하였다. 허가량은 9만 8,000마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3만 마리 적은 수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수입 생우의 중량을 350kg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향후 350kg을 초과하는 생우는 인도네시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량을 초과하는 생우는 베트남 같이 중량제한이 없는 대체 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2015/16년 호주의 생우 수출은 10% 감소한 90만 마리로 전망된다. 생우 수출 감소의 이유는 과거 2년간 도축과 생우 수출이 많아 호주의 생우 수출 여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15/16년 호주 생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생우 수출 단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비육용 소와 도축용 소 수출은 100만 마리 수준을 회복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호주 생우의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쇠고기 소비 성장이 국내 생산 증가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들 나라에서도 호주 생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장은 수입중량과 수입량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 중요한 수요처이다. 추가적인 생우 수요가 중국, 태국, 레바논 등의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일련의 쇠고기 공급 과정에 대한 Exporter Supply Chain Assurance System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림 8 호주 비육용과 도축용 소 수출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표 1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전망

구 분	단위	2012/13	2013/14	2014/15f	2015/16f	2016/17f	2016/17z	2018/19z	2019/20z
산지가격 a									
–명목	호주 센트/kg	297	293	349	405	425	437	449	450
–실질 b	호주 센트/kg	312	301	349	395	405	406	407	398
사육두수 c	백만 두	29.3	28.5	27.0	26.5	26.6	27.0	27.3	27.2
–육우	백만 두	26.5	25.7	24.2	23.7	23.7	24.2	24.4	24.4
도축두수	천 두	8,457	9,473	9,475	8,900	8,600	8,650	8,750	9,000
생산 d	킬로톤	2,245	2,464	2,473	2,359	2,279	2,292	2,328	2,394
1인당소비	kg	32.6	31.0	28.0	26.9	25.6	25.5	25.1	25.3
수출량 e	킬로톤	1,014	1,184	1,223	1,158	1,119	1,126	1,151	1,187
–중국	킬로톤	92	160	120	118	115	120	130	145
–일본	킬로톤	299	280	300	320	335	335	333	330
–한국	킬로톤	138	156	155	158	162	167	171	175
–미국	킬로톤	207	266	420	380	350	350	355	355
수출액									
–명목	호주 백만 달러	4,871	6,265	8,014	8,144	8,093	8,377	8,634	8,905
–실질 b	호주 백만 달러	5,126	6,419	8,014	7,945	7,703	7,779	7,822	7,870
생우 수출	천 두	513	996	1,000	900	900	950	975	1,000
–명목	호주 백만 달러	339	780	850	810	833	893	921	940
–실질	호주 백만 달러	356	799	850	790	792	829	835	831

주: a 지육 환산. b 2014/15년 호주달러. c 6월 30일 기준. d 지육 중량. e 냉장, 냉동육. 선적중량.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2. 양고기와 양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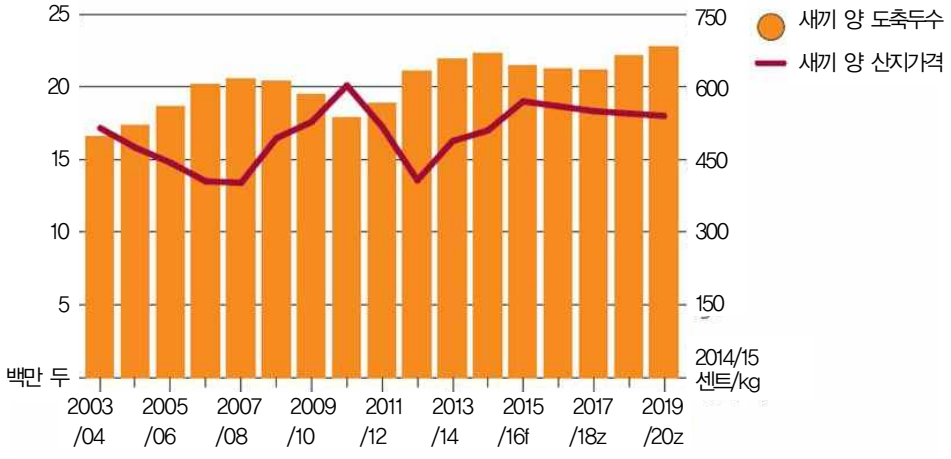
2.1. 2019/20년 전망

양 사육두수는 2015년 6월 7,100만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사육두수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19/20년 말에는 7,600만 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양 산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하량 감소, 수출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며, 호주 달러의 약세 전망도 산지가격 상승 전망에 기여한다. 2015/16년 양모의 호주 EMI(Australian Eastern Market Indicator) 평균가격은 kg당 1,075센트로 예상된다. 2017/18년도 평균가격은 kg당 1,069센트(2014/15년 불변가격)로 예상되며 이후 2019/20년도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단기 전망

2014/15년 호주 새끼 양 가격은 7% 상승하여 연간 평균가격은 kg당 510센트로 전망된다. 중동과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수출 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수출 수요와 양 사육지역의 건조한 기후조건 때문에 2014년 봄의 출하두수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여름을 지나면서 새끼양의 출하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014/15년의 잔여기간과 다음 년도에도 재입식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기후조건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호주 달러의 약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수출 수요의 증가 또한 산지가격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2019/20년까지)으로 사육두수와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질 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호주 새끼 양 산지시장 가격과 도축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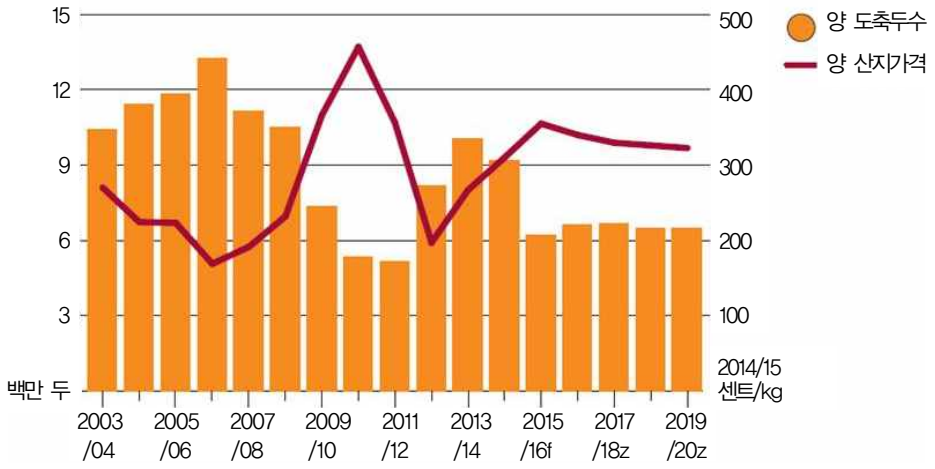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2.3. 양 가격 상승 전망

2015/16년 기후조건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양 가격은 17% 증가한 kg당 364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은 양의 출하두수가 감소하고 사육규모 회복을 위한 재입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육두수 회복이 진행되면서 암양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사육두수 회복이 완료되면 이후 출하두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하여 2019/20년 평균가격은 kg당 323센트(2014/15년 불변가격)로 전망된다.

그림 10 호주 양 산지시장 가격과 도축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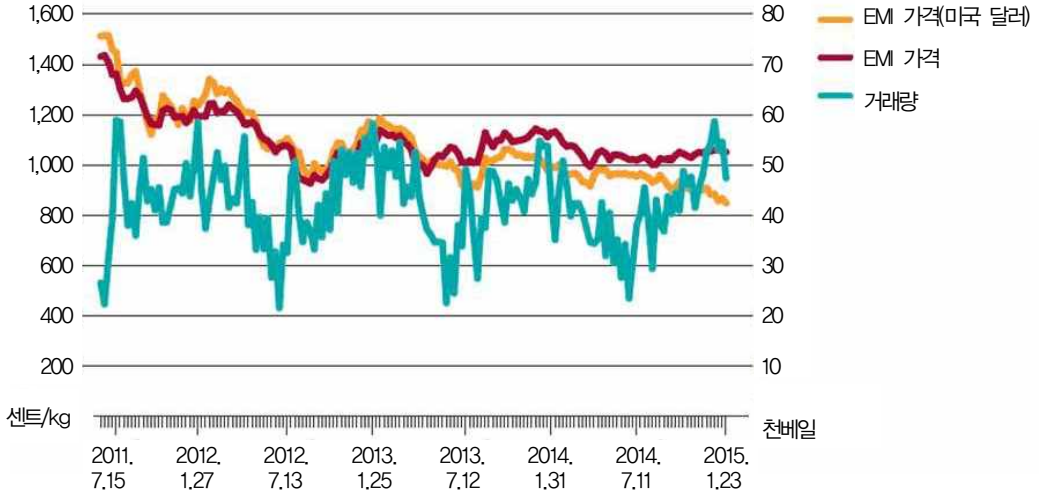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2.4. 2015/16년 양모 가격 상승 전망

2014/15년 호주 EMI 양모 가격은 2% 하락한 kg당 1,045센트로 전망된다. 2014년 8월 양모 가격은 kg당 1,001센트까지 하락하여 2014/15년 전반기 EMI 양모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5% 하락하였다. 그러나 호주달러의 평가절하와 강력한 수출수요에 기인하여 2014년 12월 마지막 주 EMI 가격은 kg당 1,057센트까지 상승하였다. 이 시기에 경매 거래건

그림 11 호주 EMI(Eastern Market Indicator) 주간 양모가격



자료: ABARES(2015).

수는 증가하였는데 7월부터 12월 사이 경매거래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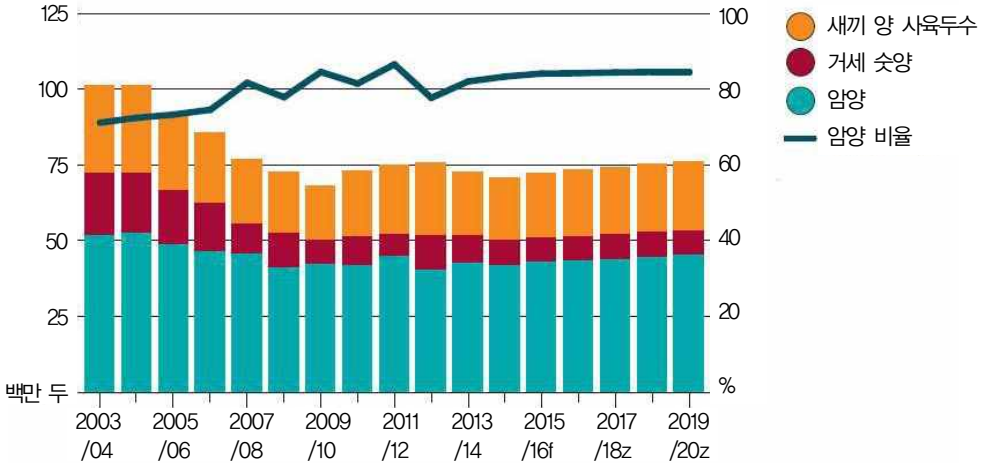
2015/16년 양모가격은 상승이 예상된다. EMI 평균가격은 kg당 1,075센트로 전년대비 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은 호주 달러의 약세와 주요 수입국의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양모 의류와 모직물 수요 증가 예상에 기반을 둔다.

중기적으로 EMI 양모 가격은 소비자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2017/18년 kg당 1,069센트(2014/15년 불변가격)로 전망된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여 2019/20년에는 kg당 1,064센트(불변가격)로 전망된다. 이 기간의 가격전망은 호주의 양 사육두수의 회복 국면을 지나 양모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을 둔다.

2.5. 2015/16년 양 사육두수 복구 국면

2013/14년과 2014/15년 상반기의 부정적인 기후조건과 강력한 양고기 수출수요로 말미암아 이 기간 동안 뚜렷한 양 출하두수의 증가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2014/15년 양 사육두수는 7,070만 마리로 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기후조건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양 사육두수는 회복 국면에 진입하여 2015/16년에는 2% 상승한 7,200만 마리로 전망된다.

그림 12 호주 양 사육두수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중기적으로 양 사육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9/20년 7,600만 마리로 전망된다. 양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번식용 암양의 비율이 상승하고 양 생산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양모 생산보다 양고기 생산으로 자원이 투자되면서 번식용이 아닌 양(특히 거세 숫양)의 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양고기 수출 수요와 이에 따른 비교적 유리한 양 가격 때문에 사육두수가 회복되는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축업자는 양 사육두수를 증가시킬 것인지, 유리한 가격에 출하를 할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기후 조건 또한 사육두수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6. 2015/16년 새끼 양 도축두수와 양고기 생산 감소 전망

지난 20년 동안 양 산업의 중심은 양모 생산에서 어린 양고기 생산으로 전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총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어린 양 도축두수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14/15년 어린 양 도축두수는 2% 증가한 2,230만 마리에 이를 전망이다. 이 수치는 1971/72년 이후 최고 기록인데, 이 때 호주 양 사육두수는 현재 사육 규모의 두 배가 넘는 1만 8,000만 마리였다.

2014/15년 전반기 평균 도축중량은 전년대비 약 3% 증가하였다. 이는 호주의 주요 양 사육지역인 호주 남부의 기상조건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새끼 양의 도축두수와 도축중량이 증가하여 새끼 양고기 생산은 2014/15년 3% 증가한 48만 8,000톤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호주 새끼 양 도축두수는 4% 감소한 2,150만 마리로 예상된다. 이는 기상조건이 평년수준을 유지하면 생산자가 양 사육 규모를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이다. 2015/16년에는 새끼 양 도축두수가 더욱 줄어 새끼 양고기 생산은 전년대비 5% 감소한 46만 6,000톤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새끼 양 도축두수는 2017/18년까지 매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도축두수가 증가하여 2019/20년 새끼 양 도축두수는 2,280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9/20년 새끼 양고기 생산량은 51만 7,000톤으로 전망된다.

2.7. 2015/16년 양고기[2] 생산량 급격히 감소 전망

2014/15년 (1년 이상의)양 도축두수는 9% 감소한 920만 마리로 추정된다. 기후조건이 2015/16년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양 도축두수는 33% 감소한 620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축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 양고기(sheep meat)는 1년 이하의 새끼 양고기(lamb)와 1년 이상의 양의 고기(mutton)로 구분됨. 이 단락의 양고기는 1년 이상의 양고기(mutton)를 의미함.

암양을 보유하려고 하면서 도축 가능한 양의 두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5/16년 양고기 생산량은 14만 3,000톤으로 2014/15년의 22만 1,000톤에 비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사육규모 복구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면 양 도축두수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양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양 도축두수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년 양 도축두수는 650만 마리, 양고기 생산은 15만 3,000톤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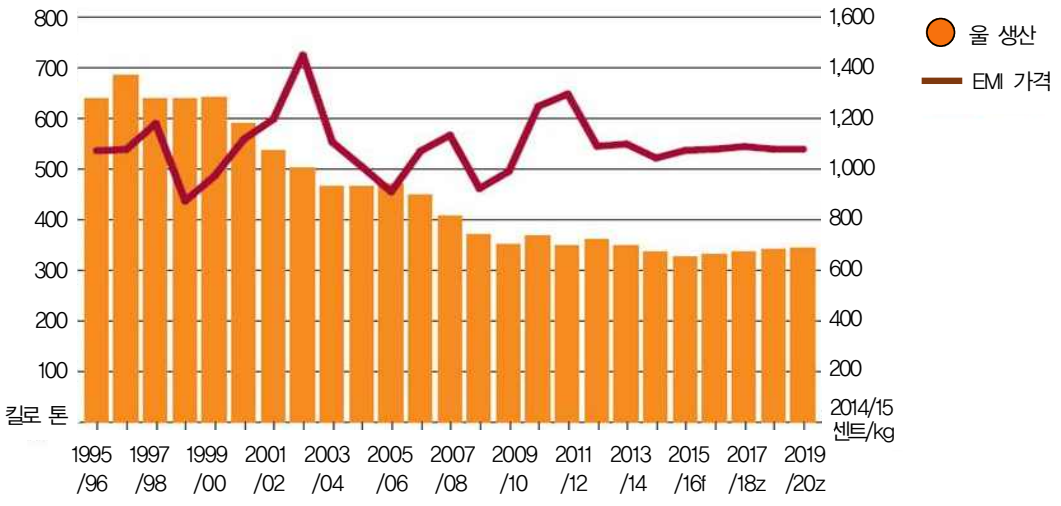
2.8. 양모 생산 감소 전망

2014/15년 양모 생산은 4% 감소한 33만 6,000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부지역의 기상상황 때문에 목초지 상황이 좋지 않아 양털을 깎은 양의 두수와 1두당 산모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2015/16년 양모 생산량은 2% 하락한 32만 8,000톤으로 예상된다. 1두당 산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양 사육두수 중 숫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모 생산은 완만히 증가하여 2019/20년 34만 5,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망기간동안 양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양털을 깎는 양의 두수 또한 증가할 것으

그림 13 호주 양모 생산량과 가격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숫양의 비율이 하락하면서 1두당 산모량이 감소하여 2019/20년 4.3kg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4/15년의 4.4kg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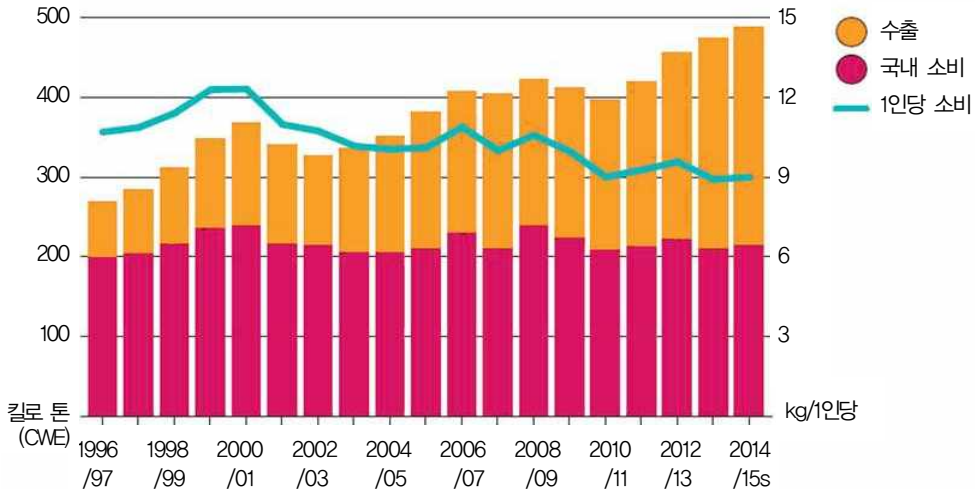
남부 호주의 양모 생산지역의 기후조건이 호전되면서 가는 양모의 생산 비율이 감소하였다. Australian Wool Testing Authority에 따르면 19.5미크론 이하의 양모 생산 비중이 2013/14년 전반기 45.6%에서 2014/15년 같은 기간에 44.5%로 하락하였다.

2.9. 호주의 새끼 양고기 소비량 소폭 증가 전망

호주의 1인당 새끼 양고기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1971/72년 23.8kg에서 2013/14년 8.9kg으로 감소하였다. 양고기 소비 감소의 이유는 과거 수십 년간 소비자 선호가 적색육에서 가금육이나 해산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새끼 양고기 소비자 가격이 다른 적색육에 비해 높은 점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호주의 1인당 새끼 양고기 소비량은 향후 수년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호주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새끼 양고기 총 소비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호주 새끼 양고기 생산, 수출, 국내 소비



자료: ABARES(2015).

2.10. 새끼 양고기(lamb) 수출과 시장 개발

2014/15년 호주 새끼 양고기 수출은 6% 증가한 24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해외 수요와 새끼 양 도축두수의 증가 예측에 기반을 둔다. 2014/15년 양

고기 수출액은 12% 증가한 16억 4,000만 달러로 예상된다.

2015/16년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10% 감소한 21만 5,000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끼 양의 도축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16년 수출액은 8% 감소한 15억 달러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새끼 양고기 수출은 2017/18년 20만 4,000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양 사육규모가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후 수출이 증가하여 2019/20년 25만 톤으로 전망된다.

2.10.1. 중동

중동은 호주 양고기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성장해왔다. 양고기 수출은 2013/14년까지 10년 동안 550%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은 중산층이 확대되고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양고기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양고기 수요 증가는 2014/1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호주산 새끼 양고기의 중동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3만 4,700톤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요르단으로의 수출은 36% 증가한 9,100톤을 기록하여 중동지역에서 호주산 양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두 번째 큰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은 12% 증가한 8,900톤을 수입하였고, 카타르는 42% 증가한 5,900톤을 수입하였다. 바레인은 2012년 8월 호주가 이 지역에 대한 양(생축) 수출을 중지한 이후 호주 양고기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생축 수출 재개 후 2014/15년 상반기 바레인의 호주산 어린 양고기 수입은 19% 감소한 5,400톤이었다. 이 기간 동안 호주는 바레인으로 생축 14만 9,600마리를 수출하였다. 이 실적은 2012년 8월 생축 수출 중지 전 6개월 수출 실적인 15만 7,700마리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2014/15년 전체적으로 중동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은 8% 증가한 6만 5,000톤으로 예상된다. 이후 호주의 새끼 양고기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어 2015/16년 수출은 3% 증가한 6만 7,000톤으로 예상된다. 양고기 공급이 경직되면서 향후 수년간 중동 수출시장의 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10.2. 중국

중국은 지난 10년간 소비자 수요의 강력한 성장을 바탕으로 호주산 양고기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양고기 소비증가는 도시화 진행과 소득 증가에 기인하여 육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은 2013/14년 4만

1,000톤으로 4년 전의 1만 2,000톤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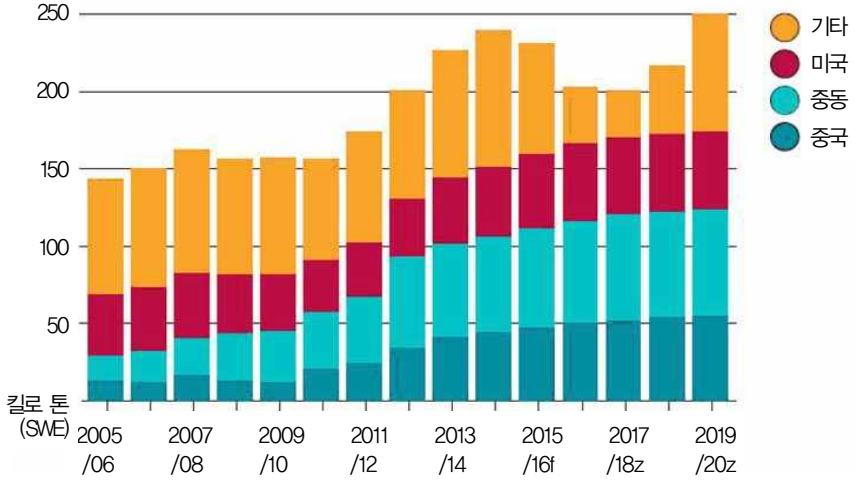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수요가 성장하면서 2014/15년 중국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은 7% 증가한 4만 4,000톤, 2015/16년 다시 7% 증가한 4만 7,000톤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성장세는 완만해지면서 2019/20년 5만 9,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2.10.3. 미국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은 호주산 새끼 양고기의 가장 큰 시장으로 2013/14년 수입액은 3만 9,900만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양고기 시장은 틈새시장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과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호주산 새끼 양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은 2014/1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간 대비 20% 증가한 2만 4,000톤이었고 연간으로는 11% 증가한 4만 7,000톤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수출은 4% 증가한 4만 9,000톤으로 예상된다. 잔여 전망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은 연간 평균 5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주요 수출국 별 호주 어린 양고기 수출 실적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2.11. 뉴질랜드와의 경쟁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양고기 수출국이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비교하여 주요 시장인 중국과 EU 시장에 대한 뚜렷한 장점이 있고 환율 조건 또한 유리하다.

2013/14년 뉴질랜드는 중국에 새끼 양고기 9만 4,500톤을 수출한 것에 비해 호주는 4만 1,200톤에 그쳤다. 뉴질랜드와 중국은 2008년 FTA를 체결하여 양고기 관세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양고기 수출에 있어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2016년에는 양국 간 양고기 무역에 부과되는 관세가 소멸한다. 호주산 양고기의 중국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는 12~23%이다. 중국-호주 간 FTA가 발효되면 호주산 양고기 관세는 8년에 거쳐 감축된다.

EU는 양고기 고가 부위의 주요 수입국인 동시에 수출량과 수출액 측면에서 뉴질랜드 양고기의 가장 큰 시장이다. 2013/14년 뉴질랜드는 EU에 새끼 양고기 11만 9,600톤을 수출한 반면, 호주는 1만 3,900톤에 불과하였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간 무관세 쿼터의 크기를 반영한다. EU의 양고기 무관세 쿼터는 뉴질랜드 22만 8,254톤, 호주 1만 9,186톤이다.

Beef+Lamb New Zealand의 전망에 따르면 2014/15년 뉴질랜드의 총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2.6% 감소한 29만 7,000톤이다. 이는 중기적으로 북섬에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남섬을 중심으로 양 사육에서 젖소 사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망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새끼 양고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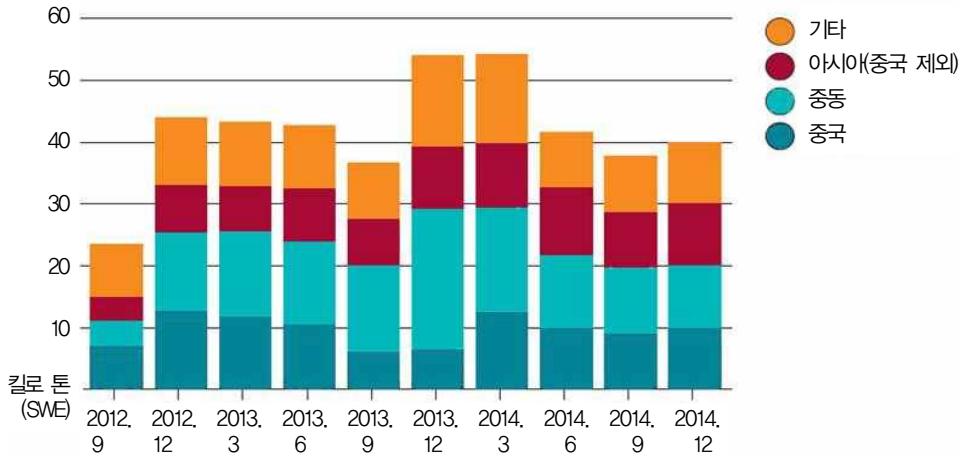
2.12. 2014/15년 양고기(mutton)[3] 수출 감소

2013/14년 호주의 양고기 수출은 지난 25년 기간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66% 증가한 5만 9,000톤,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은 58% 증가한 4만 5,000톤이었다.

2014/15년 호주의 양고기 수출은 6% 감소한 17만 2,000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 출하두수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다. 2015/16년에는 10만 8,000톤으로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양고기 수출은 정체 또는 약간 증가하는 수준으로 2019/20년에는 11만 6,000톤으로 전망된다.

3) 이 단락의 양고기는 1세 이상의 양고기(mutton)을 의미함.

그림 15 수출 국가별 양고기(mutton) 수출(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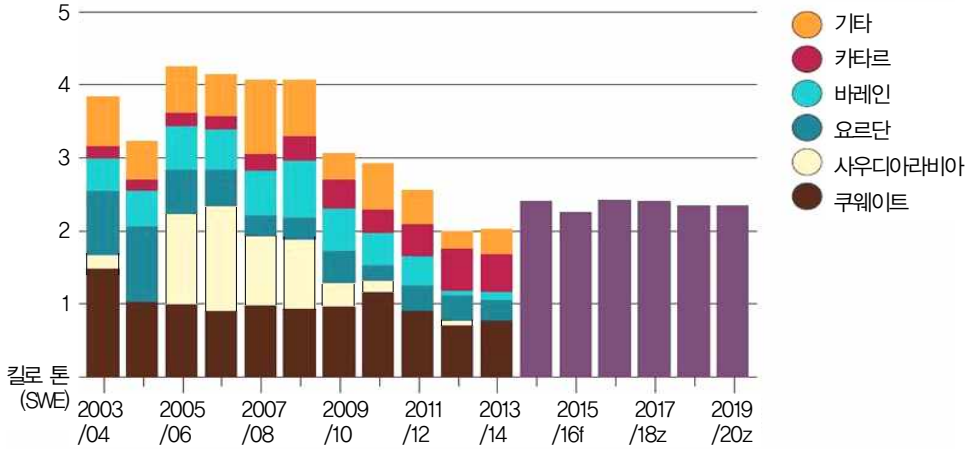


자료: ABARES(2015).

2.13. 양(생축) 수출

2014/15년 호주의 양(생축) 수출은 19% 증가한 240만 두로 예상된다. 이는 상반기 중 양의 출하마리수가 증가하였고, 강력한 수출 수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생축 수출의 주요 시장은 중동 지역으로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등의 나라가 있다.

그림 16 호주 양(생축) 수출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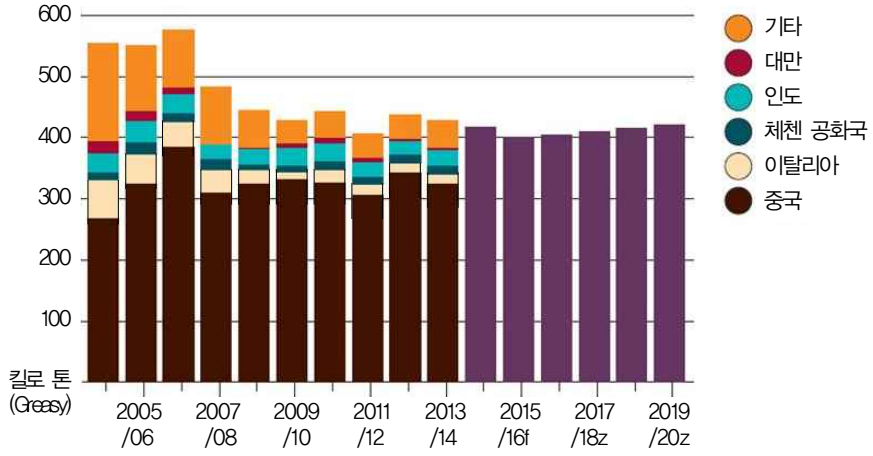
양 사육규모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2015/16년 호주의 생축 수출은 6% 감소한 230만 마리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수출 능력이 확대되면서 호주의 생축 수출은 약간 증가한 연간 평균 240만 마리 수준으로 전망된다.

2.14. 호주 원모 수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양모 수출국으로 2013년 세계 원모 수출량의 40%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뉴질랜드 16%, 남아프리카공화국 5%, 영국 3%이다. 2013/14년 호주의 양모 수출액 중 미가공 원모의 수출이 77%, 전처리가공 원모의 수출이 8%를 차지한다. 양피(양모가 붙어있는)의 수출이 나머지 15%를 차지한다.

2014/15년 호주의 양모 수출은 2% 감소한 41만 8,000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호주의 양 사육두수 감소를 반영한다.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6% 감소한 27억 달러로 예상된다. 2015/16년 양모 수출량은 추가로 4% 감소하여 4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후 전망 기간 동안 호주의 양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양모 수출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년 양모 수출량은 42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17 국가별 호주 양모 수출



주: f ABARES 전망.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2.15. 원유가격 하락과 합성섬유의 경쟁력 향상

최근 양모는 세계 직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합성섬유와 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제조기술은 서로 다른 직물 간 대체가 가능하고 이 대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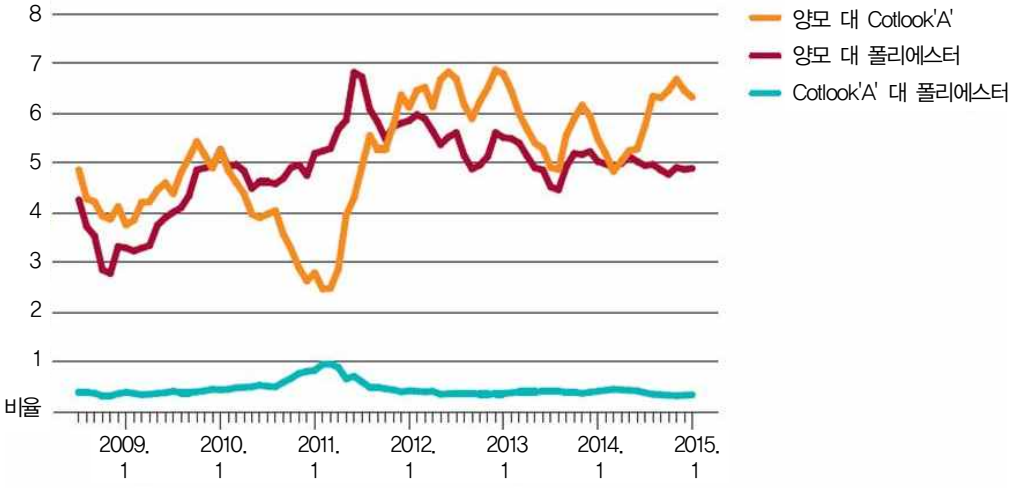
정도에 따라 상대 가격이 결정된다. 양모는 주로 고가의 직물과 의류의 제조에 사용된다. 합성섬유와 면에 대한 양모의 상대가격은 양모의 경쟁력을 나타낸다. 2014년 2월~2015년 1월 사이에 양모는 폴리에스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폴리에스터 가격에 대한 21미크론 양모가격의 비율이 5.04에서 4.90으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합성섬유에 대한 양모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섬유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합성섬유의 가격은 국제 원유가격에 연동된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 걸쳐 국제 원유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합성섬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4년에 국제 원유가격을 하락시킨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원유 생산량 증가분이 소비량 증가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양모에 대한 합성섬유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최소한 단기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면도 양모와 경쟁하는 주요 직물이다. 2014년 2월~2015년 1월 사이에 Cotlook 'A' 등급에 대한 21미크론 양모 가격의 비율은 5.49에서 6.33으로 상승하였다. 단기적으로 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양모에 대한 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모에 대한 다른 직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한 EMI 가격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 타 직물에 대한 양모의 상대가격



자료: ABARES(2015).

표 2 양고기와 양모 전망

구 분	단위	2012/13	2013/14	2014/15f	2015/16f	2016/17z	2017/18z	2018/19z	2019/20z
가격									
새끼 양 a									
–명목	센트/kg	386	476	510	584	588	590	600	610
–실질	센트/kg	406	488	510	570	560	548	544	539
양 a									
–명목	센트/kg	187	262	310	364	357	355	360	365
–실질	센트/kg	196	268	310	355	340	330	326	323
EMI c									
–명목	센트/kg	1,035	1,071	1,045	1,075	1,118	1,151	1,180	1,204
–실질	센트/kg	1,089	1,097	1,045	1,049	1,064	1,069	1,069	1,064
양 사육두수									
총 두수	백만 두	75.5	72.7	70.7	72.1	73.2	74.2	75.2	76.1
털 깎은 양	백만 두	81.9	79.2	75.8	74.6	75.5	76.6	77.6	78.3
두당 산모량	kg	4.41	4.37	4.43	4.40	4.40	4.40	4.40	4.30
도축두수									
새끼 양	천 마리	21,122	21,899	22,300	21,470	21,276	21,156	22,184	22,765
양	천 마리	8,192	10,066	9,200	6,197	6,616	6,681	6,480	6,479
생산 e									
새끼양고기	천 톤	457	474	488	466	460	459	481	517
양고기	천 톤	183	228	221	143	155	157	146	153
원모생산									
–털깎기	천 톤	361	350	336	328	332	337	341	345
–기타	천 톤	75	81	80	71	72	71	73	75
–계	천 톤	435	431	417	399	404	409	415	419
1인당소비									
새끼양고기	kg	9.6	8.9	9.0	9.0	9.0	9.0	9.0	9.0
양고기	kg	0.3	0.4	0.2	0.2	0.2	0.2	0.2	0.2
수출									
새끼양고기 수출 h	천 톤	201	226	240	215	207	204	223	251
새끼양고기 수출액									
–명목	백만 호주 달러	1,086	1,468	1,641	1,504	1,473	1,471	1,606	1,735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1,142	1,504	1,641	1,467	1,402	1,366	1,455	1,533
양고기 수출 h	천 톤	144	183	172	108	118	119	111	116
양고기 수출액									
–명목	백만 호주 달러	480	758	801	486	567	596	577	578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505	777	801	474	540	553	522	511
생축 수출	천 마리	2,000	2,020	2,400	2,250	2,425	2,398	2,339	2,345
양모 수출	천 톤	437	428	418	400	405	410	415	420
양모수출액									
–명목 i	백만 호주 달러	2,869	2,877	2,708	2,719	2,868	2,996	3,107	3,208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3,019	2,948	2,708	2,653	2,730	2,782	2,815	2,836

주: a 산지경매가격, 지육환산. b 2014/15년 호주달러 불변가격. c 양모가격, 세척양모 환산. d 6월 30일 기준. e 지육중량. f ABARES 전망. g 양모 있는 양피, 양피에서 제거한 양모, 도축과정에서 제거한 양모 포함. h 냉동, 냉장육 포함, 선적중량. i 국제수지 기준. s ABARES 추산.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5).

참고문헌

ABARES. 2015. *Agricultural commodities.* ABARES.